

## 진주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

민주주의로 국민들이 느끼는 권리는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한시기 한시기 정권이 바뀌지만 10년, 20년 큰 세월을 돌아보면 세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느리던지 빠르던 간에 분명한 방향은 기득권이 점점 줄어들고 보통사람들의 권력이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정치로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시절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권리가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5년 전 후보 노무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노무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이 투명·공정한 사회, 특권과 부패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필요 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해 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해도 좋다는 사회로 되돌아가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부패보다 더 무섭다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실체가 있는 주장입니까. 경제가 위기라고 규정했을 때,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2003년 취임 당시가 위기였습니다. 극복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합니다.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만 오천불 시대의 평균 성장률은 3%라는 게 정설인데, 그것을 상회하는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경제의 성과 뿐 아니라 건전성과 잠재력을 함께 보면, 참여정부 경제성장력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참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나고 보니 속았다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능동적 시민, 생각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